

靑, 미·일·중·러 상대 방북 여건조성 급선무

‘북미 대화 중재’·중국 ‘도우미’ 역할 기대...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지지 호소할 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 초청과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청와대의 외교적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당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淸)을 상대로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로 꼽히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려 하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핵심적 과제로는 ‘북미 대화의 중재’가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상황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뜻으로, 그 핵심은 가장 큰 대립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 재개라고 할 수 있다.

김 제1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동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보좌관 간 ‘핫라인’을 토대 방남 결과를 공유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정간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의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채널 가동도 주목된다. 청와대로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지원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를 보인 점은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에 ‘도우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시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러시아·일본에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북미대화로 연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 1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 이점을 보였지만 일본과의 대화 노력도 이어간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데탕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에 남북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기조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기업, 중기 기술자로 요구 금지 위반 땐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

당정, 대·중기 ‘비밀유지 서약’ 의무화

당정은 12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중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로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지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중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법적 행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행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 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 대통령 “만남의 불씨를 햇불로” 김여정 “평양 꼭 오세요”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함께 관람 김여남 “재회 희망 안고 간다” 북 대표단 방남 마치고 돌아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남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마지막 일정을 함께하면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자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 내외에게 꼭 평양에 와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1일 저녁 김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에 앞서 마련된 환담 자리에서 김여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자주 상봉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했으니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만난 것이 소중하다”면서 “이 만남의 불씨를 키워서 햇불이 될 수 있게 남북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한 시간 반 가량의 공연 관람을 마친 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이겨나가자”는 말과 함께 작별인사를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늘 건강하세요”라며 “문 대통령과 꼭 평양을 찾아오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한 북한 예술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설명을 듣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문 대통령.

이 12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갔다. 현승원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137명은 이날 오전 11시 3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지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예술단 단원들은 CIQ에서 남측에 머물렀던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

예술단 본진은 지난 6일 만경봉 92호를 타고 방남한 지 엿새 만에 북귀하는 것이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11일에는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공연했다. 우리 가요와 북한 노래, 해외 클래식 곡 등으로 구성된 이들의 공연은 객석을 가득 메운 남측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북한 예술단이 남측에서 공연한 것은 2002

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당시 이후 15년 6개월 만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부, 광주 송정역시장 2018년 대표 전통시장 선정

서울 남대문시장 등 20곳

광주 1913송정역시장이 2018년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1913송정역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 등 20곳을 2018년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 전통시장은 ▲서울 남대문시장·통인시장·망원시장 ▲경기 수원남문시장 ▲인천 신기시장 ▲부산 국제시장·부평강동시장·자갈치시장 ▲대구 서문시장 ▲광주 1913송정역시장 ▲강원 원주중앙시장·정선아리랑시장 ▲충청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 ▲경북 안동구시장 등이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공주산성시장, 충북 청주유곡리종합시장·단양 구경시장, 전북 전주

남부시장·남원공설시장,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도 포함됐다.

대표 전통시장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콘텐츠와 연계 관광지, 외국인 관광객 수용대세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선정 심사에는 관광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광학계, 여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대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상품 개발, 관광공사 해외지사·주요 관광박람회 연계 해외 홍보, 개별관광객 유치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고, 시장별로 관광객 유치 컨설팅,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을 열어 전통시장 온라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야·전·답·바로 삽니다!
전국·땅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NPL 등 특수물건만 취급★
경매·투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 조 선 대 :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 광주여대 : 3월 6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6일(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6일(화) ~ 2018년 6월 12일(화)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건물임대

| 병원적합 |

건물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 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 면 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층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임대물건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 대 료 별도협의(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병원/학원등
장 점 도로점(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